

중국의 가축위생 환경

김정수 역
(의령지부장)

1. 중국의 가축위생 행정조직 체계

중국에서의 가축위생행정은 농업부 하에 설치되어 있는 축목 수의사 및 동식물 검역소가 이를 집행하고 있는데, 축목 수의사가 국내방역을, 동식물 검역국이 수출입 검역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편 동식물 검역국은 명칭을 국내에서는 「농업부 동식물 검역국」, 대외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국」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내 각성에는 농업청이 있고, 그 산하에 축목국(축산이 발달되어 있는 성(省)에는 농업청에서 독립한 기관으로서 축목청)이 수출입 검역을 제외한 지방급 가축위생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성, 축목청 또는 축목국 하에 수의처가 설치되어 있다. 시·현에는 농업국 및 축목국이 향(읍면에 해당)에는 축목부가 설치되어 있다.

2. 중국의 국내방역

중국내의 방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IE의 리스트 A 및 B 질병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 예방, 만연방지조치가 실시되고 있다. 이 중 전염성 질병 발생시 통보체제는 전염성 질병의 중요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통보체제는 전술한 가축위생 행정조직체계를 거쳐 농업부 축목 수의사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중국내에서 미발생된 해외 전염병 또는 발생이 되었더라도 국한적으로 발생되었거나 만일 전염성이 높은 특별한 전염성 질병발생시에는 발생사실을 확인한 조직에서 직접 농업부 축목 수의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중국의 방역대상 주요 질병에 대한 방역대책 및 발생상황은 다음과 같다.

구제역 : 국내방역으로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

는 질병이다. 과거 중 국내에서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93년 6월에 운남성과 해남성에서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발병동물 및 감염의혹이 있는 동물은 모두 처분(도살·소각)함과 동시에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고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그후의 발생은 없었다. 한편 역학조사 결과 이들 발생지역이 모두 국경지역이라는 점에서 인접국가로부터의 침입에 의한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 및 뉴캐슬병 : 발생했을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방역대책은 발생예방을 기본으로 하여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결핵병 및 부루셀라병 : 공중위생상의 관점에서 수검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소(牛)의 도살처분시 보상이 곤란하다는 현실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실시되지 않고 있고, 격리 및 우유출하금지 외에 착유우 사양농장으로의 양성우 도입금지 등의 행정 지도가 실시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목장내의 생산농장에 의한 자체방역의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다.

우(牛)폐역 : 1986년에 발생된 바 있었지만 현재는 기본적으로는 잘 통제되고 있다.

말전염성 빈혈 : 1950년경에는 위협적인 질병이었지만 당시의 국무원 명령에 의해 감염말의 처분이 실시된 결과 현재는 북부지역의 일부에만 극히 소수 발생하는 정도이며 집단발생은 없다.

오제스키병 : 북부의 일부지역에 존재하며 현재 중점방역대책 대상 질병의 하나로서 이 질병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 중국의 동물검역

중국의 동물검역은 1991년의 전대회에서 가결

되어 1992년 시행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동법은 1982년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행정지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정하여 제정되었다. 동물검역 실무에서는 세계 40여개국과의 사이에서 110항목에 이르는 수출입 검역에 관련된 가축위생조건을 취합하여 이를 근거로 수출입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는 49개소의 동식물검역국 및 지국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밑에 합계 260개의 분국을 두고 있다. 각 동식물 검역국 및 지국은 각각의 검사실을 소유하고 있지만 각소에서 모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내용에 따라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대응하고 있다.

격리시설(계류시설)은 규모가 큰 북경, 천진, 상해 및 광주의 각 동식물 검역국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동식물 검역국 중 북경 및 천진의 동식물 검역국 및 천진 동식물 검역국의 계류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국 (북경동식물 검역국)

지난해 7월까지 동식물 검역총소라고 호칭되었던대로 전국의 동식물 검역국·지국·분국의 총괄부서로서 국내 및 국제적인 연락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검역국은 독자 사무소를 건설중으로, 현재 별조직 시설의 일부에 본부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당해 본부에서 집무하고 있는 직원(간부)수는 10명이다.

(2) 천진동식물검역국

이 검역국은 지상 11층, 지하 1층의 독자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1층에서 6층까지 관리부서 사

무소 및 검사실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다(6층 이상 및 지하는 임대부분).

이곳은 천진항, 천진신항 외에 천진공항을 관할하며, 동물 검역소, 식물 검역소, 인사처, 종합 업무처, 행정처, 보세구처, 공항처, 경리처등의 8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직원수는 180명이다.

동물검역소에는 축산물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1과와 동물의 검사 및 검사실 업무를 담당하는 2과가 있다.

검사실 내에는 세균검사실, 세포실(세포배양 무균실)을 포함한 바이러스검사실, 병리조직검사실, 기생충검사실, 생화학검사실, 혈청반응검사실 등의 정밀검사실 외에 배양기실, 세정실, 검사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관리보관하는 컴퓨터실 및 도서실이 있다. 각 검사실에는 캐나다제 기기를 중심으로 한 ELISA기기, 크린벤치, 형광현미경, 동결건조장치, 분광광도계 등의 신형기기가 정비되어 있다.

계류시설(进口 동물격리장)은 관리부문 사무소에서 약 15km, 천진 신항에서 약 10km, 천진 공항에서 약 20km의 거리에 위치하며 1989년 캐나다로부터 설계협력을 받아 중국의 자본으로 건설되었다. 총 부지 면적 약 4헥타아르를 보유하고, 주위는 벽돌로 포장되어 있으며 이 계류시설 내에는 관리동, 주차장, 보일러실, 직원식당, 격리구에는 축사 3동(수용능력 : 소 200두, 돼지 400두, 산양 600두), 격리축사 1동, 치료실, 사료 저장실, 오수처리시설, 관리인실, 동물반입용 플랫폼(도로), 해부실 등의 시설이 있다.

축사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대가축 및 중가축용 각 우리(금속파이프제), 스텐레스제 사조 및 자동급수기 부착)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천정에 설치된 온도 및 습도감지센서에 의해 축면의 환기팬(대·중·소)이 축사내 환경에 따라



〈그림 1〉 천진동식물검역국의 축사구조

자동조절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각 축사로의 관리인을 포함한 사람의 출입은 샤워룸 및 갱의실, 복도를 경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1 참조). 각 축사는 축사 입구부분에 축사 연결복도에 의해 통행하며, 관리인용 숙박 시설에는 침대가 준비되어 있는 한편, 식사(식기) 반출입용 창구가 설치되어 있다.

당해 계류시설에서는 동시에 복수 로트의 계류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한 검사는 임상검사를 중심으로 하며 채취재료는 관리부문에 병설된 검사실로 보내진다.

수입동물의 계류기간은 수출국에 의한 구분은 없으며, 종축은 45일간, 육용축은 30일간이다. 작년에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면양 및 러시아산 돼지의 수입실적이 있었고, 오는 11월에는 미국산 돼지(200두)의 수입이 예정되어 있다.